CEO와 staff

단 한 사람의 수퍼스타보다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여러 명의 스타를 선택하고 홈런보다 연타를 더 선호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한 사람의 수퍼스타보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 모퉁이의 돌처럼 균형 있게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CEO가 스태프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영환
남화토건(주) 상무이사

영화 대종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반드시 함께 영화를 만들었던 스태프(staff)를 소개하면서 그들과 영광을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늘 듣는다. 또한, 유럽의 프로축구에서 골을 넣은 선수의 동영상을 재클로즈업 시킨 후 골을 넣도록 도와준 선수의 묘기 역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최고의 수상과 골인의 영광을 위해서는 부원과 보좌역 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우리는 지난 1960년대, 1970년대 도시든 시골이든 간에 작두샘물이 있었다. 나이 든 분들은 그 작두샘에 물을 부어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뿜어내는 것을 모두 체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때 작두물통에 붓는 물이 마중물이다. 이 마중물은 비록 한 바가지의 물이지만 지하수를 뿜어내 갈증 난 모든 사람과 동물 · 식물에게까지 도공급할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는 귀중한 물이었다.

필자는 이 마중물을 준비된 스태프로 비유하고자 한다. CEO는 규모에 따라서 스태프(임원, 부서장, 팀장, 보좌역)를 거느린다. CEO는 최고의 유전자를 계승한 복제 비즈니스맨이 대거 탄생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수퍼스타보다 못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여러 명의 스타를 선택하고 홈런보다 연타를 더 선호해야 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한 사람의 수퍼스타보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던 사람이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물 모퉁이의 돌처럼 균형 있게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CEO가 스태프를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일부 대기업의 CEO 및 스태프들은 불법과 편법, 그리고 정도를 벗어나는 일을 가끔 저지른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고 사회로부터 도큰 지탄을 받고 있다. 사회규범이란 보통 사람들이 지극히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이것이 올바르게 일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한 상식을 말한다. 실제로 사회규범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기업은 사회적인 규탄을 받게 된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했을 경우 사회는 해당 기업을 고사시킬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CEO는 항상 임직원이 사회의 일원으로 그 규범 안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스태프도 건전하고 합리적이며 사회의 규범에 맞게 합의점을 찾아 CEO에게 건의하고 보좌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관공서와 각종 단체 등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관계 부서의 말단 직원이 기안을 통해 기획하는 것이 부랴부랴 채택되어 방침이 되곤 하였다. 요즘에는 관 · 기업 모두가 팀제로 제도화되어 깊게 사고하고 범위를 더 넓게 포괄적으로 집약하여 방책이 채택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최근 우리 영화계의 관심거리인 「밀양」이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감독, 작품 및 주연상을 왜 받았을까? 그것은 물질 문명 시대에 게주어진 '?'를 이 사회에 던졌기 때문이다. 허영과 탐욕을 자제하는 것이 조절되지 않으면 결국 비극이요 자멸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너는 어찌하겠는가'하는 질문이었다.

CEO와 스태프가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흥망을 가를 수도 있다. 모든 임직원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CEO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조직의 일원들이 일하는 즐거움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영에 힘써야 한다. 반면, 스태프는 CEO가 기업 성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객관적이고 도사회의 규범에 맞게 나아가도록 참스태프로서, 그리고 도우미로서 CEO를 위해 생각을 같이 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마치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다.